

증산사상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 한반도 상등국 천지공사를 중심으로 -

김 정 완

대진대학교 · 교수

- | | |
|---------------------------|-------------------------------|
| I. 서론 | IV. 증산 상등국 천지공사의 현실화 과정 |
| II.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지정학적 함의 | V. 상등국 천지공사의 이념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
| III. 증산의 상등국 천지공사의 주요내용 | VI. 연구결과의 함의와 맺음말 |

I. 서론

1. 연구목적

우주대권의 주재자로서 증산의 천지공사는 천·지·인 삼계공사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삼계공사는 삼위일체로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인계공사(人界公事)로 귀결된다. 이는 현 시대가 하늘과 땅보다는 인간이 강조되는 인존시대라는 점과 인간만이 천지공사를 실행할 수 있는 실천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증산사상에 있어 인간은 무정부적인(anarchistic)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다양한 인간 공동체 중에서 현실에 있어 가장 발달된

형태가 국가이다. 따라서 증산의 천지공사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상등국 공사로 귀결된다. 이에 증산은 한반도를 상등국으로 하여 선천의 상극세상을 매듭짓고 세계가 상생하는 후천의 선경세계를 건설하고자 했다.

지난 100여 년간의 한반도의 역사는 증산께서 설계한 상등국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작업이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세계의 정치·경제·문화가 한반도로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징표가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이하 DMZ공원)’이다. DMZ공원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안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고 UN으로부터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면서 DMZ를 사이에 두고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지역에 평화의 상징으로서 DMZ공원을 건설함으로써 한반도가 세계평화의 메카로서 세계 정치경제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향후 DMZ에 건설될 세계생태평화공원은 단순한 공원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 전진기지, 남북 평화산업단지, 더 나아가 통일수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DMZ공원은 남북통일과 함께 세계 정치경제의 중심축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함으로써 한반도 중심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는 데 중심점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DMZ공원을 증산의 상등국 천지공사 관점에서 그 성격을 규명하고 향후 전개과정에 대한 예측과 함께 남북한의 통일과 한반도 중심의 세계정부 건설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증산의 상등국 천지공사와 DMZ공원 간의 상합성을 분석함에 있어 문헌연구를 기본으로 한다. 먼저 대순진리회의 『전경』에 나타난 증산의 상등국 천지공사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해석하고 향후 전개과정을 예측한다. 그 과정에 있어 한반도의 필연적인 역사 전개과정에 대한 이해와 함께 향후 세계 정치경제의 한반도 수렴과정을 천지공사의 관점에서 규정한다.

이를 위해 『전경』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과 이에 대한 해석학적인 접근(interpretive approach)을 통해 상등국 천지공사의 내용을 체계화한다. 이를 준거틀(reference framework)로 하여 한반도의 역사와 미래를 설명하고 예측한다. 실증적인 역사 분석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한반도의 역사는 상등국 건설을 위한 기반조성기였다면 현재는 한반도가 세계의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전면에서 부상하면서 상등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가는 과정이다. 이에 대한 단초가 DMZ공원의 구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등국 천지공사의 관점에서 DMZ공원을 해석하고 향후 전개과정을 예측한다. 더 나아가 발전론적(developmental) 관점에서 상등국의 천지공사를 구현하기 위한 모사재천(謀事在天) 성사재인(成事在人)의 실천원리를 정립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서 본 연구는 첫째, 학문적인 관점에서는 상등국 천지공사에 대한 『전경』의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DMZ공원의 위상과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이론적 연구의 분석틀을 정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현실 문제를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둘째,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DMZ공원에 대한 철학적·이론적인 배경을 정립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 끝으로 대순사상 연구의 관점에서는 상등국 천지공사의 현실적 유용성을 검증하여 현실 적용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실제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철학적 규범학문으로서 증산사상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요한 현실문제에 대한 적용을 통해 증산사상의 보편화와 대중화를 촉진할 수 있다.

II.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지정학적 함의

1.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위상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이하 DMZ공원)’은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 이 미국 국민방문 당시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의 형태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안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공동선언의 주요 골자는 지난 60년간의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구촌의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양국 정상은 DMZ공원을 조성할 것을 합의했다.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는 1953년 한국전쟁 휴전 후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평화지대로 설정되었으나 현재는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중무장된 지역으로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으로 변했다. 현재의 DMZ는 남북한 분단의 상징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마지막 대결 장소로 간주된다. 이러한 DMZ에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평화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 더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와 인류 공동번영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DMZ공원은 상생의 시대흐름 속에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점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남북한은 지난 70여 년 동안 지속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할 시점에 도달했다. 현재 북한은 최근에 접어들면서 중국으로부터의 더 이상 지원과 지지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김일성 주석 사후 중국은 북한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면서 정치적 후견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철광석을 비롯한 막대한 지하자원을 편취해왔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그동안의 중국의 지원은 인민경제를 부흥시키는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자원

이 수탈해 갔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이러한 일련의 상황인식은 김정은 제1위원장에 의한 장성택의 처형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북한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한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한국 또한 무한경쟁 구도로 전개되는 세계경제 상황 하에서 대외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북한의 양질의 인력과 풍부한 지하자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현재 한국의 제품은 가격 측면에서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에 밀리고 기술 측면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뒤처지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새로이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남북한의 관계는 급격하게 진전될 것으로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현재 김정은 북한 정권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대남관계 개선 모색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한국은 5.24조치 등 보수진영의 논리와 다양한 국내 정치이슈들로 말미암아 적극성의 정도가 낮을 뿐이지만 기본적으로 대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대가 조성되고 상호 간의 화해와 교류의 물꼬가 트인다면 그 흐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첫 번째 남북공동 프로젝트는 DMZ 공원 조성이 될 것이다. 향후 조성될 DMZ공원은 판문점이나 임진각과 같은 단순한 공원의 수준을 넘어 남북 평화산업단지와 남북교류 전진기지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진전에 따라 통일수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DMZ공원은 남북한 간의 분단·갈등·대립을 해소하고 상호 간의 해원상생을 실현함으로써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주춧돌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DMZ공원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DMZ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양분되어 마지막으로 세계대전(상씨름)을 치룬 곳이며 그 전쟁은 현재 종결되지 않은 휴전상태에 머물러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하게 싸워

극도의 원한이 맺혀 있는 지역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이 조성되는 경우 세계가 그 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에 접어들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것이다. 그 결과 DMZ공원은 전 인류가 해원상생할 수 있는 원천과 에너지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 생태평화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도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약속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DMZ공원 내에는 통일과 세계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국제기구들을 입지시킴으로써 세계정치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DMZ공원 최적의 후보지로 평가되는 중부권 접경지역(연천과 철원)에서는 유엔평화유지활동센터(UN PKOO)의 유치와 세계평화대학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입지 후보지

현재 DMZ공원의 후보지로 서부권·동부권·중부권의 세 권역이 거론되고 있다.¹⁾ 첫째, 서부권은 남쪽의 파주시·고양시 일대로 이루어져 있다. 서부권은 현재 관문점이 위치하고 경의선이 복원되어 있고 개성공단의 출입로가 개설되어 있는 관계로 남북 교류의 주요한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향후 새로이 남북 교류 전진기지 와 통일수도를 조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현재 산업시설이 포화상태에 있으며 서울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북한과 함께 하는 공동경제 구역을 설치함에 있어 정치적·군사적으로 장애가 있다. 더 나아가 향후에는 현재의 남북 평화산업단지나 교류 전진기지를 조성할 때에는 남북한 어느 한쪽 영토 내만 설치하기보다는 동시에 양쪽에 걸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서부권은 임진강으로 남북한이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궁극적으로 향후의 통일수도는 남북한이

1) 김정완, 「통일시대를 대비한 접경지역 시군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한국지방행정학보』 10 (2013), pp.177-178.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영역에 조성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입각할 때 서부권은 입지여건이 불리하다.

둘째, 동부권은 고성군·양구군 일대를 포함한다. 동부권은 현재 동해선이 개설되어 있고, 향후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북극항로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다. 그러나 동부권은 주로 산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용토지와 수자원이 미흡하여 대규모의 산업단지나 남북교류 거점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중부권은 연천군·철원군·포천시로 이루어져 있다. 중부권은 역사적 동질성이 강하고 한반도 중흥의 중심으로서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임진강과 한탄강이 흐르고 있어 수자원이 풍부하고 남북이 평면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가용토지가 광활하다. 기반시설 측면에서도 경원선과 함께 세 개의 국도가 남북으로 통과하는 곳이다. 그 결과 중부권은 향후 남북 경제교류 전진기지로서의 적합성이 높은 권역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부권은 포천시의 3분의 1을 포함하여 전 지역이 38도선 이북으로 6.25 이전에는 북한 영토이었기 때문에 향후 평화공원의 조성에 있어 북한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유리하다. 또한 중부권은 북한의 평양과 한국의 세종시 간의 등거리(160km)에 위치하고 있어(그림1) 향후 통일수도의 입지로서 지정학적인 이점을 갖고 있다. 이밖에도 한반도 종단철도(KTR)의 중심 노선인 경원선이 관통하는 지역으로서 남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횡단철도(CTR)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STR)와 연계하여 유럽대륙으로 연결되는 철의 실크로드의 시발점에 해당된다(그림2). 따라서 중부권은 남북통일에 즈음하여 한반도가 세계의 정치경제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지정학적인 여건을 구비하고 있는 지역으로 DMZ공원의 최적 후보지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중부권이 최적지로서 과반수를 지지를 받은 바 있다.²⁾

2) 김찬권,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국민 인식도 조사」, 『중부권 접경지역의 미래: 평화



<그림 1> 중부권의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

이와 같이 남북분단을 넘어 세계 최후의 이념적 대결 장소라고 할 수 있는 DMZ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상생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 정치경제의 거점을 건설하게 된다. 이곳에는 유엔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입지하게 되어 향후 세계 정치경제의 일번지로써 세계정부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최근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금융위기, 유럽의 재정위기, 일본의 장기 경기침체 등으로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질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한반도가 새로운 거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종단철도를 중심으로 한 21세기 철의 실�크로드 구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반도 종단철도는 남쪽으로는 해저터널에 의해 일본과 연결되고 동북쪽으로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어 유럽을 향하고 서북쪽으로는 중국 횡단철도와 연결된 후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합류하여 유럽을 거쳐 도버 해저터널을 거쳐 영국까지 연결된다(그림2).

다양한 한반도의 종단철도 노선 중에서 서쪽의 경의선(서울 ↔ 신의주)과 동쪽의 동해선(양양 ↔ 원산)을 연결하는 경원선(서울 ↔ 원산)이 핵심축이다. 특히 경원선은 철원에서 금강산선(철원 ↔ 내금강산)과 연계되어 마식령 스키장과 금강산 관광을 비롯하여 남북경협的重要한 노선이다. 이러한 경원선은 DMZ공원의 유력한 후보지인 중부권 접경

공원과 통일수도』, DMZ 세계평화공원 중부권 유치위원회 Workshop, 대진대 DMZ연구원, (2014), pp.63-113.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 따라서 중부권은 DMZ공원, 남북교류 전진기지, 통일수도, 세계 정치경제의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지정학적인 요건을 갖고 있다.



<그림 2> 경원선(중부권)의 세계의 지정학적 위상

III. 증산의 상등국 천지공사의 주요내용

1. 증산의 천지공사의 시대적 배경: 개혁과 천지공사

증산께서는 선천(先天)의 말세적인 병리현상을 해소하고 후천(後天) 선경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탄강하게 되었다. 1871년 탄강 당시의 시대상황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상극원리가 인간세계를 지배함에 따라 국제적으로는 제국주의 열강의 대립으로 세계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사회적으로는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불균형으로 사회부조리가 팽배하고,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가치관의 붕괴로 기본원리가 타락하고, 생태적으로 무분별한 자연환경의 파괴로 천재지변이 발생하고, 의학적으로는 무절제한 생활습관으로 괴질이 창궐하여 인류공동체가 붕괴되기 직전에 직면해 있었다.³⁾ 이를 해소하기 위해 증산께서는 31세인 되던 해인 1901년(신축년)부터 1909년(기유년) 화천

하기까지 천지공사(天地公事)를 단행했다.⁴⁾ 천지공사는 선천의 상극과 난도난법의 세계를 정리하고 후천의 선경세계를 준비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선천에서 후천으로 바뀌는 과정을 개벽(開闢)⁵⁾이라고 한다면 천지공사는 개벽시점에 있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 혹은 정지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선후천 전환의 개벽 시점에서는 기상이변·천재지변·기아·질병 등으로 인류가 진멸할 지경에 도달하게 된다. 증산께서는 천상에서 이를 목도하고 직접 탄강하여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을 건지기 위해 천지공사를 행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증산을 개벽시점에 있어 삼계대권의 주재자라는 의미에서 개벽장(開闢長)이라고 규정한다.⁶⁾ 지구의 일 년 사계절이 바뀌듯이 우주 역시 일정한 사이클로 순환한다. 증산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변화를 무위이화(無爲而化)의 생·장·염·장(生·長·斂·藏)의 과정으로 표현하고 있다.⁷⁾ 지구 일 년은 농부가 초목농사를 짓는 과정이라면 우주 일 년은 하늘에서 인간농사를 짓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생(봄)은 하늘에서 인간을 탄생시키고, 장(여름)은 인간을 성장시키고,斂(가을)은 인간을 결실하고, 藏(겨울)은 인간을 저장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증산께서는 현재를 인간의 알맹이(人種)를 추리는 우주 가을철로 규정하고 있다. 증산께서는 우주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과정은 우주적인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성숙과정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만물이

3) 『전경(典經)』, 예시 1절.

4) 증산의 생애를 요약하면 성장기(1-20세), 수학 및 유력기 (21-30세), 성도기 (31-39세)로 구분할 수 있다. 21세 이후에는 동양철학을 섭렵하였고 전국을 유력하면서 조선의 현실을 직시했다. 실제로 24세(1894년)에는 동학혁명을 목도했으며 25세에는 1년간 유불선과 음양참위에 대한 서적을 섭렵했다. 특히 천지공사 직전인 27-30세가지를 전국 각지를 유력하면서의 후천 개벽을 준비하기 위한 천지공사를 구상했다. 구사회, 「강증산의 종교운동과 민족의식」, 『한국민족문화연구』 23 (2007), pp.7-36.

5) 『전경』에서는 개벽의 개념을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선천에서 후천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고유명사뿐만 아니라 보통명사로서 통상적인 혁신·변화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사 1장 2절과 권지 1장 11절에서의 개벽은 보통명사로서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전경』, 공사 1장 1절.

7) 같은 책, 교법 3장 27절.

가을바람에 의해 고사하기도 하고 혹은 성숙되는 것과 같이 참된 사람은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지만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할 것”⁸⁾이라는 양면성을 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증산께서는 가을바람에 모든 초목이 죽듯이 우주 가을철을 맞이하여 창생이 진멸하는 것을 염려하였다. 이와 같이 우주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철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해당되는 개벽시점에서 증산은 인간과 신명을 구제하기 위한 실천적인 구원적인 작업으로서 천지공사를 행했다.

<표 1> 선천·개벽·후천의 전개과정에 관한 『전경』의 성구 예시

변화	진경의 구절
선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1장 3절: 선천에서는 인간과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에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다. - 예시 8절: 삼계가 개벽되지 아니함은 선천에서 상극이 인간지사를 지배하였으므로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따라서 천·지·인(天地人)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이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생겼나니라.
개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2장 24절: 신 원일이 개벽공사를 빨리 행하시기를 상제께 간청하니라. 상제께서 「인사는 기회가 있으며 천시는 때가 있으니 그 기회와 때를 기다릴 것이니 이제 기회와 천시를 역지로 쓰면 그것은 천하에 재화를 끼치게 될 뿐이며 역조의 생명을 역지로 앗아가는 일이 되리라. 어찌 차마 행할 바이냐고 말씀하셨으되 원일이 「방금 천하가 무도하여 선악을 분별하기 어려우니 속히 이를 잔멸하고 후천의 새 운수를 열어 주시는 것이 옳을까 하나이다」고 말하면서 간청하니 상제께서 심히 괴로워하셨다. - 교법 3장 24절: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에 먹줄을 겨누게 하고 사경의 감정을 빈갯불에 붙이리라.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지기(至氣)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통겨지리라. 운수야 종건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리라. - 교법 3장 43절: 세상이 급박해질 때 산도 물도 붉어지리라. 자식이 지중하지마는 제 몸을 돌볼 겨를이 없으리라. 어찌 자식의 손목을 잡아 끌어낼 사이가 있으리오.

8) 같은 책, 예시 30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법 3장 46절: 대저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이 편하리라. <u>닥쳐오는 일을</u> 아는 자는 창생의 일을 생각하여 비통을 이기지 못하리라. - 예시 51절: 천지에 수기(水氣)가 돌 때 만국 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통어(通語)하게 되나니 수기가 돌 때에 와지끈 소리가 나리라.
후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법 3장 41절: 후천에서는 종자를 한 번 심으면 해마다 뿌리에서 새싹이 돌아 추수하게 되고 땅도 가꾸지 않아도 옥토가 되리라. 이것은 땅을 석 자 세 치를 태우는 까닭이니라. - 교법 3장 44절: 상제께서 이런 말씀을 중도들 앞에서 하신 적이 있느니라. 「내가 출세할 때에는 하루 저녁에 주루 보각(珠樓寶閣) 십만 간을 지어 각자가 닭을 공덕에 따라 앉을 자리에 앉혀서 신명으로 하여금 각자의 옷과 밥을 마련하게 하리라. 못 앉을 자리에 앉은 자는 신명들이 그 목을 깔어 내리라」 - 예시 81절: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

2. 증산의 천지공사의 범위: 천지인 삼계공사

증산께서는 이 세상에 탄강하여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치고, 사람에게도 신명으로 하여금 드나들 수 있게 하여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자들을 찾아 쓰는 등 모든 것에 운을 붙여 쓰기 위해 천지공사를 단행했다.⁹⁾ 증산의 천지공사는 1901년(신축년)부터 1909년(기유년)까지 천지인 삼계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맨 먼저 증산께서는 1901년 5월 증산부터 전주 모악산 대원사(大院寺)에서 주지승 박 금곡(朴錦谷)의 시중을 받으면서 49일 동안 불음불식하면서 공부를 계속하여 동년 7월 5일에 오룡허풍(五龍嘯風)에 천지대도(天地大道)를 열

9) 같은 책, 교법 3장 1절, 예시 7절.

어¹⁰⁾ 본격적인 천지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수행했다. 동년 겨울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개벽장으로서 9일 동안 본격적으로 천지공사를 집행하기 시작했다.¹¹⁾

증산께서는 1902년(임인년) 4월부터는 김형렬 중도의 집을 거처로 삼아 그와 함께 천지인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개혁하여 후천의 무궁한 지상낙원을 건설하기 위한 천지공사를 단행했다.¹²⁾ 인간과 사물이 모두 상극원리에 의해 지배됨에 따라 상도(常道)를 상실하여 참혹한 상황에 처해 있는 선천을 상생의 선경세계로 바꾸기 위한 천지인 삼계공사 중에서 먼저 천계공사로서 신명공사를 단행했다.¹³⁾ 그 동안 신명정부인 명부(冥府)의 착란으로 말미암아 천지인 삼계가 비겁에 빠졌다는 인식하에서 먼저 명부의 질서를 회복함으로써 신명 조화정부를 건설하기 위해 주요국가의 명부 수반(首班)을 새로이 정했다.¹⁴⁾ 조선명부(朝鮮冥府)에 전명숙(全明淑), 청국명부(淸國冥府)에 김일부(金一夫), 일본명부(日本冥府)에 최수운(崔水雲)을 각각 임명하였다.¹⁵⁾

그 다음 증산께서는 선천의 갈등을 해소하고 후천 선경을 건설하기 위해 지계공사를 단행했다. 지기(地氣)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서로 사상이 엇갈려 반목과 갈등을 겪게 된다는 인식하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사를 행했다.¹⁶⁾ 이를 위해 증산께서는 1908년(무신년)에 세계의 혈자리이며 축소판인 한반도의 주요 강산의 정기를 뽑아 합치는 공사를 집행했다. 진주 모악산과 순창 회문산을 부모산으로 규정하고 먼저 24혈을 포함하고 있는 회문산의 오선위기형(五仙圍碁形)의 지기를 뽑아 단주(丹朱)의 해월에 사용

10) 같은 책, 행록 2장 12절.

11) 같은 책, 공사 1장 1절.

12) 같은 책, 공사 1장 2절

13) 같은 책, 공사 1장 3절

14) 같은 책, 예시 10절, 공사 1장 5절.

15) 같은 책, 공사 1장 7절.

16) 같은 책, 공사 3장 5절.

하고 그 밖의 네 곳의 명당(明堂)의 정기를 뽑아 종합하였다. 무안 승달산(僧達山)의 호승예불형(胡僧禮佛形), 장성 손룡(巽龍)의 선녀직금형(仙女織錦形), 태인 배례밭(拜禮田)의 군신봉조형(群臣奉詔形), 부안 변산(邊山)의 해왕(海王) 24혈의 정기를 뽑았다.¹⁷⁾

증산계서는 이러한 지기통일과 함께 세계 각국의 사상과 문화를 통일하는 공사를 행했다. 각 민족들이 장기간에 걸쳐 독자적인 생활패턴이 전승됨에 따라 특수한 사상과 문화를 낳고 이것이 발휘됨에 따라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났다고 인식했다. 따라서 각 민족의 문화 정수(精髓)를 건어 후천의 통일 문명의 기초를 수립하였다.¹⁸⁾ 이를 위해 각 민족 문화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종교에 대한 공사를 단행하여 각 종파의 종장(宗長)을 새로이 임명함으로써 종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민족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자 했다. 기존의 선도(仙道)·불도(佛道)·유도(儒道)·서도(西道)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바탕을 이루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최수운(崔水雲)을 선도, 진묵(震默)을 불교, 주회암(朱晦庵)을 유교, 이마두(利瑪竇)를 서도의 종장으로 새로이 정했다.¹⁹⁾ 이로써 증산계서는 새로운 종장들과 함께 세계의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리고 각 민족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의 정수를 뽑아 통일하여 물샐틈없는 도수를 짜 놓았다.²⁰⁾

증산계서는 이와 같이 천계와 지계공사를 단행함에 있어 해원을 기본원리로 채택했다. 예전에 보국안민·문명개화·지상낙원 등의 인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큰 목표를 실행하고자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원한을 품고 죽은 인사들에 대한 해원을 기본으로 했다. 먼저 천계공사를 행함에 있어 조선명부에 임명된 전명숙은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는 홀로 백의한사로 일어나서 천하의 난을 일으켜,²¹⁾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고 천인을 귀하게 만들어 주려는 마음

17) 같은 책, 공사 3장 6절.

18) 같은 책, 교법 3장 23절.

19) 같은 책, 교운 1장 65절.

20) 같은 책, 예시 12절.

을 두었으나²²⁾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형상의 이슬로 사라졌다. 일본 명부 최수운은 상제로부터 천명과 신교(神敎)에 의한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 받았으나 능히 유교의 전헌(典憲)을 넘어 대도의 참뜻을 밝히지 못하고 1894년(갑자년)에 처형당했다.²³⁾

그 다음 지계공사를 공사를 행함에 있어 불교의 종장 진묵은 천상에 올라가서 온갖 묘법을 배워 인세에 그것을 베풀고자 하였으나 김봉곡(金鳳谷)에게 참혹히 죽은 후에 원(冤)을 품고 동양의 도통신(道通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화 계발에 역사했다.²⁴⁾ 서도(西道)의 종장 서양인 이마두(利瑪竇)는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運)을 열었다.²⁵⁾ 주회암은 송나라 유학자로서 자신의 사상과 주장을 강조하기보다는 공맹의 유교경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에 몰두하여 이를 성리학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유학을 완성시켰다. 그러나 과거에 등제하여 관직에 진출하여 황제에게 요순(堯舜)의 덕치(德治)를 설명하며 봉사(封事)와 상서(上書)로 누천만언(屢千萬言)을 진언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관료들의 미움을 받아 만년에는 모함을 당하고 기인으로 몰리는 등 많은 고생을 겪었다. 이밖에도 증산계서는 천지공사를 행함에 있어 해원 차원에서 이마두를 초혼하여 광주 무등산 상제봉조(上帝奉詔)에 장사하고 최수운을 초혼하여 순창 회문산 오선위기(五仙圍基)에 장사하였다.²⁶⁾

21) 같은 책, 공사 1장 34절.

22) 같은 책, 교법 1장 2절.

23) 같은 책, 교운 1장 9절.

24) 같은 책, 권지 2장 37절.

25) 같은 책, 교운 1장 9절.

26) 같은 책, 예시 66절.

증산께서는 천지공사의 마지막 단계로 인계공사를 단행했다. 천계와 지계공사를 통해서 천지도수를 정리하여 신명정부를 조화롭게 하고 지기를 통일함으로써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어 상생의 후천 선경을 열어 놓은 후에 인사를 조정하였다.²⁷⁾ 실제로 증산께서는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치듯이 신명들로 하여금 사람에게 드나들게 하여 성격과 체질을 바꾸어 천지공사에 동참하도록 했다. 이는 비록 말뚝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임이 되는 연고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직 어리석고 가난하고 천하고 약한 것을 편이하여 마음과 입과 뜻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죄를 조심하고 남에게 척을 짓지 말도록 하였다.²⁸⁾

3. 조선 상등국 천지공사: 배경과 전개과정

증산께서는 천지인 삼계공사의 일환으로 조선 상등국 공사를 단행했다. 모사재천(謀事在天) 성사재인(成事在人)의 관점에서 볼 때 천지공사의 실행 주체는 인간이며 여기서 인간은 무정부상태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듯이 인간은 태생적으로 사회적인 욕구를 갖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생활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숙한 존재로 성장하게 된다. 증산 또한 해원상생·보은상생을 통한 인간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인간 공동체 중에서 국가가 가장 발달된 전형적인 공동체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헤겔은 국가를 최고의 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증산께서는 우주의 절대자로서 후천 선경세계를 준비하기 위한 천지공사를 행함에 있어 전 세계의 모든 국가와 민족을 동시에 개혁하기보다는 특정한 국가와 민족을 대상으로 하여 그 효과가 전 세계로 파급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실제로 증산께서는 바로 한반도와 한민족을 천지공사의 중심국으로 설정하고 이를 상등국으로 만

27) 같은 책, 예시 9절.

28) 같은 책, 예시 7절, 교법 3장 4절.

들어 후천의 선도국가로 삼고자 했다.

이와 같이 증산계서는 당시 보잘 것 없는 약소국가에 불과했던 조선을 천지공사의 주도국가로 선택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었다. 첫째, 해원상생을 들 수 있다. 증산계서는 천상에서 서양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삼계공사를 통해서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기 위해 동방을 순회하던 중 조선 땅에 머문 것은 참화에 문힌 무명의 약소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 주기 위해서였다.²⁹⁾ 둘째, 보은상생이다. 증산계서는 조선과 같이 신명을 잘 대접하는 곳이어 세상에 없어 신명들이 그 은혜를 갚고자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³⁰⁾ 조선인을 중심으로 각국의 명부공사를 단행했다. 셋째, 명당(明堂)의 원리이다. 증산계서는 “조선강산 명산으로 도통군자 다시 난다.”는 동학의 궁을가(弓乙歌)를 인용한 바 있다. 이는 자신이 조선에 강세함으로써 도통군자를 배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증산계서는 동학 신자들이 대선생의 갱생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신이 대선생이라고 말함으로써³¹⁾ 자신이 선택한 조선이 세계의 혈(穴) 자리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증산의 조선 상등국 공사는 천지공사 중에서 맨 먼저 단행했던 천계의 신명공사에서부터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1902년(임인년) 각국의 명부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조선명부에 전명숙, 청국명부에 김일부, 일본명부에 최수운을 각각 임명함으로써 주요국가의 명부를 한민족 출신으로 구성했다.³²⁾ 이로써 후천세계를 한민족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후천개벽의 기본방침을 정한 셈이다. 그 다음 예전에 동양의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리고 서양으로 건너간 신명들을 환원시키는 공사를 행했다. 인세 선경세계 건설을 목표로 공부하려다 김봉곡에

29) 같은 책, 권지 1장 11절.

30) 같은 책, 교법 3장 22절.

31) 같은 책, 권지 1장 11절.

32) 같은 책, 공사 1장 7절.

게 죽음을 당한 후에 원(冤)을 풀고 동양의 도통신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화를 계발했던 진목을 초혼하여 불도의 종장으로 임명했다. 이와 함께 동양에서 지상천국을 건설하려다 실패한 후에 동양의 문명신을 대동하고 서양으로 넘어가 서양의 문운(文運)을 개화시킨 바 있는 이마두를 초혼하여 광주 무등산 상제봉조(上帝奉詔)에 장사하고 서교의 종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밖에도 각 종파의 종장을 새로이 임명함에 있어서도 한민족 출신 혹은 친한(親韓) 신명을 선택함으로써 세계의 문화와 사상을 한민족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증산계서는 이러한 신명공사를 바탕으로 하여 조선 상등국 천지공사를 구체적으로 집행해 나갔다. 이와 함께 진목을 비롯하여 동양에서 서양으로 넘어갔던 신명들뿐만 아니라 서양의 신명들까지 화물선의 화물표에 따라 넘어오게 하였다.³³⁾ 증산계서는 1901에서 1909년 기간 동안 조선 상등국 공사를 비롯한 천지공사를 단행했으며 그 효과는 지난 100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에 이르러 조만간 완성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천지공사 당시 한반도의 상황은 인구 이천만 명 미만의 전근대적인 체제에 머물러 있는 약소국가로 제국주의 세계열강의 손쉬운 먹잇감에 불과했다. 당시 조선은 이리떼들에 의해 둘러싸인 어린양과 같이 그 국운이 풍전등화와 같았다. 이러한 조선을 후천 세계의 주도국으로 만들기 위한 조선 상등국 공사는 삼 단계의 주도면밀한 로드맵에 의해 이루어졌다. 증산계서는 이를 씨름판에 비유하여 얘기씨름판·총각씨름판·상씨름판으로 나누어 진행했다.³⁴⁾

첫째, 얘기씨름판으로 이는 서양의 열강으로부터 동양을 수호하는 공사이다. 증산계서는 1903년(계묘년)에 동양 형세가 그 존망의 급박함이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처해 있어 세력의 중심축이 서양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공사를 먼저 행했다.³⁵⁾ 당시 조선에서 제국주의 열강

33) 같은 책, 공사 1장 15절, 예시 9절.

34) 같은 책, 교법 2장 33절.

35) 같은 책, 공사 1장 13절.

들이 입김을 행사함에 따라 국정 운영방향에 대한 여러 당파 간 국론이 분열되어 혼란을 거듭했다. 특히 친러와 친일로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증산계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서양은 인종 차별과 동서 구별이 심하기 때문에 일본을 도와 러시아와 서양세력을 물리치는 공사를 행했다.³⁶⁾ 이를 위해 대신문(大神門)을 열어 49일 한도수로 하여 동남풍을 불러 일으켜 서양 세력을 꺾어 놓도록 했다.³⁷⁾ 그 결과 실제로 1904년(갑진년) 러일전쟁에서 일본 해군이 당시 세계 최강인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대한해협에서 동남풍이라는 기상조건을 이용하여 격파했다.

러일전쟁의 패배로 러시아의 남진정책은 동양이 아닌 서양 쪽으로 진로를 잡게 된다. 그 당시 러시아가 비록 일본에 패했을지라도 서양 세력은 여전히 강하여 동양에 대한 침략의 야욕을 불태웠다. 이에 증산계는 1903년(계묘년)에 조선 신명을 서양에 건너보내어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공사를 행했고,³⁸⁾ 그 결과 1차 세계대전(1914-1918)이 발발하였다. 1차 세계대전의 승패는 공식적으로는 프랑스와 대영제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 독일제국과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중심의 협상국을 물리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양쪽이 막대한 군사적·경제적 손실과 1918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에 의한 전력 상실로 자연적으로 종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애기씨름판에 의해 러시아와 서양세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그들로부터 동양을 지켜낼 수 있었다.

둘째, 총각씨름판은 일본의 제국주의를 종결시키는 공사이다. 애기판은 러일전쟁과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일본을 중심으로 동양을 서양으로부터 수호하는 공사였다면 총각판은 일본을 꺾는 공사이다. 애기판에서 동양을 방어한 후에 증산계서는 일차적으로 중국(청)과 일본

36) 같은 책, 공사 1장 12절, 예시 13절.

37) 같은 책, 예시 24

38) 같은 책, 예시 25절.

중에서 어느 나라를 동양의 주도세력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다. 이에 증산께서는 1903년(계묘년)에 조선을 서양으로 넘겼다면 인종의 차별로 학대가 심하여 살아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청국으로 넘겼다면 그 민족이 우둔하여 뒷감당을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일단 일본에게 맡기는 공사를 행했다.³⁹⁾ 이에 증산께서는 중국과 일본 간에 두 차례의 싸움을 붙인다. 첫 번째 싸움에서는 일본이 승리하지만 두 번째 싸움은 10년 동안 전개되어 결국은 일본이 쫓겨 들어가는 공사를 행했었다.⁴⁰⁾ 그 결과 1931년 1차 중일전쟁(만주사변)에서 일본이 승리했지만 1937년 (2차) 중일전쟁은 1945년까지 계속되다가 연합국에 의해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종결되었다.

이와 같이 증산께서 중국보다는 일본에게 일차적으로 주도권을 부여한 점은 조선을 임시적으로 그들에게 위탁 관리한 셈이었다. 실제로 증산께서는 일본을 새끼를 낳은 백호로 비유하여 범이 새끼를 낳으면 그 부근 마을까지 돌봐주는 것처럼 일본이 조선까지를 보호해 줄 것이며 이것이 조선을 서양과 러시아·청국 등의 열강으로부터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더 나아가 잠자는 호랑이 코털을 건드리면[宿虎衝鼻]해를 입듯이 일본의 비위를 거스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백호는 청룡이 동(動)하면 곧 물러갈 것이라고 했다.⁴¹⁾ 여기서 백호가 일본이라면 청룡은 일본의 왼쪽에 위치한 미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은 1941년 진주만 폭격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후 미국에 의해 1945년에 패망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서 중일전쟁도 종결되면서 한반도에 소련군이 38선 이북을 점령하게 된다. 이는 증산께서 1903년(계묘년) 행한 중일전쟁 종결 후 호병(胡兵)이 들어오게 되지만 한강 이남은 범하지 못한다는 공사에 의해서 비롯되었다.⁴²⁾

증산께서 일본에게 러일전쟁(1904년) 이후에 1945년까지 주도권을

39) 같은 책, 공사 2장 4절.

40) 같은 책, 예시 26절.

41) 같은 책, 예시 57절.

42) 같은 책, 예시 26절.

제공한 것은 조선에게 임시 피난처를 부여한 셈이다. 일본은 임진관 이후 도술신명 사이에 척이 맺혀 있어 그들에게 일시에 조선을 맡겨 주어야 척이 풀릴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일시 천하 통일 지기(一時天下統一之氣)와 일월 대명지기(日月大明之氣)를 붙여 주어 역사케 했다. 다만 인(仁)만은 조선인에게 그대로 남겨주었다. 그 결과 일본인들은 조선에서 일만 하고 품삯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게 됨에 따라 말대접이나 후덕하게 주라고 일렀다.⁴³⁾

증산계서는 일본에게 조선을 위탁하는 공사(1903년 계묘년)를 행한 이후에 일본의 기운을 걷는 공사를 단행했다. 실제로 1908년(무신년)에 신방축 공사를 통해서 일본의 지기를 뽑았다. 일본은 지기가 강렬하여 그 민족성이 탐욕과 침략성이 강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을 일삼았고, 그 결과 우리나라 역시 예로부터 그들의 침해를 받아 왔다. 따라서 그 지기를 뽑아야 자신의 살림이 분주하게 되어 남을 넘볼 겨를이 없게 되어 한반도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편하게 될 수 있었다. 증산계서는 1908년 7월(음력) 태인의 신방축 마을의 대장간에서 많은 글을 써서 풍구불에 태우는 공사를 행했다. 그 결과 동년 8월 23일(음력)에 일본 신호에서 원인 모를 큰 화재가 발생하였다. 신방축은 한자로는 신호(神壕)로서 일본의 신호(神戶: 고베)와는 동음이라는 점에서 이곳에서 일본 지기를 뽑는 공사를 행했다.⁴⁴⁾

이와 함께 증산계서는 1909년(기유년)에 초대 조선통감이었던 이등박문을 제거하는 공사도 행했다. 안내성 종도로 하여금 곤봉으로 마룻장을 치게 하고 “이제 병고에 빠진 인류를 건지려면 일등박문이 필요하고 이등박문이 불필요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 결과 동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이등박문(伊藤博文)이 안중근(安重根) 의사(義士)에게 암살되었다.⁴⁵⁾ 증산계서는 이러한 일련의 공사를 통해서 일본이

43) 같은 책, 공사 2장 4절.

44) 같은 책, 공사 3장 33절.

45) 같은 책, 행록 5장 5절.

패망의 길에 접어들도록 천지공사를 행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켰다.

셋째, 상씨름판은 한반도에서 공산주의를 비롯한 외세를 몰아냄으로써 조선 상등국을 실현하는 공사이다. 증산께서는 애기판(러일전쟁과 1차 대전)과 총각판(중일전쟁과 2차 대전) 공사를 통해서 조선을 서양의 열강과 일본 제국주의로 구출하였다. 그런데 총각판의 결과 38선을 중심으로 소련과 중국 중심의 공산주의와 미국과 일본 중심의 자본주의가 대립하게 되었다. 총각판 이후 세계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양극체제가 형성되면서 양측 간의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었다. 따라서 양자 간의 대결구도 속에서 공산주의를 붕괴시키고 자본주의를 세우는 과정에서 한반도와 한민족이 세계의 중심국가로 성장하도록 하는 공사가 필요했었다.

이에 증산께서는 한반도에서 38선을 중심으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전쟁이라는 상씨름을 붙였던 것이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이 체결됨에 따라 씨름판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힘을 겨루는 살바싸움이 지속되었다. 그런 가운데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은 1997년 등소평 등장 이후 개혁개방에 의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수용함으로써 공산주의가 힘을 잃어가는 상황이다. 특히 남북대결의 당사국인 북한은 역시 경제가 침체되면서 대결구도가 종결되어 가는 상황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상씨름이 자본주의의 승리로 종결되는 경우 한반도가 상등국이 되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자본주의의 주도국이 되기 위한 과정이 남아 있다.

이에 증산께서는 한반도가 최종적으로 세계 상등국이 되기 위한 천지공사를 행했다. 1903년(계묘년)에 오선위기(五仙圍碁) 도수를 통해 한반도라는 바둑판을 중심으로 두 신선(미국과 중국)이 대국(對局)을 하고 두 신선(러시아와 일본)은 훈수를 하는 가운데 주인(한반도)은 수수방관하면서 손님대접만 잘 하면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되고 대국이

끝나면 바둑판과 바둑돌은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 결과 옛날 한 고조(漢高祖)는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면 한민족은 좌상(座上)에서 득천하 하게 된다는 것이다(예시 28절). 증산께서는 오선위기 구도 하에서 조선 상등국 공사를 입안한 후에 1907년(정미년)에 구체적으로 바둑판을 종결하는 공사를 행했다. 네 신선은 판을 놓고 서로 패를 지어 따먹으려 하므로 날짜가 늦어서 승부가 결정되지 못함에 따라 최수운을 초혼하는 대결을 종결지었다.⁴⁶⁾

IV. 증산 상등국 천지공사의 현실화 과정

1. 오선위기 공사와 한반도 주변 국제정치

증산께서는 오선위기 도수를 통해 한반도 상등국 건설을 위한 설계도를 완성했으며 현재 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 정세가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씨름판이 오선위기의 바둑판 대결로 종결되어 가는 상황이다. 이는 현재 남북한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결집되어 있는 북한의 핵문제로 귀결된다. 북한의 핵문제가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일본·중국·러시아 간의 핵심적인 외교문제로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남북통일을 비롯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상생적인 국제관계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선위기의 관점에서 북핵의 결과를 예상한다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국가들이 북한에 막대한 경제원조를 단행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한반도는 경제성장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하고자 했던 의도를

46) 같은 책, 공사 2장 3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핵개발을 통해 남한이나 주변국가와 전쟁을 수행하기보다는 자기보호를 위한 자위권보장, 김정일·김정은 정권 승계 과정에서의 체제유지, 대외 원조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협상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자위권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그 동안 후견인의 역할을 수행했던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최근에 접어들면서 축소되거나 단절된 상태에서 자체 방위를 책임져야 할 상황에 직면했었다. 특히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자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체제유지와 관련하여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정권이 승계되는 과정에 있어 핵개발을 통해서 국가적인 위상을 고양시키고 동시에 주변국가들과의 갈등관계 조성을 통해 인민들의 일체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다.

현재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상기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핵이 대외 원조 확보용이라는 점이다. 이점이 오션위기 도수의 실효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다. 과연 주변국가들이 최종적으로 한반도에 비독판과 비독돌을 놓고 물러갈 것인가의 여부이며 이는 북핵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주변국가들이 화합하여 북한에 경제원조를 단행할 것인가이다. 미국·일본·중국·러시아·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6자회담이 결성되었다는 점에서 오션위기 도수의 기본 틀이 일단 조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관련 국가들의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직접적인 미국 본토 공격을 걱정하기보다는 중동국가의 과격분자의 손에 북핵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알카에다·탈레반·하마스 등이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을 통해 개발된 경량화·소형화된 핵무기를 접수하는 경우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 위협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이 이란을 비롯한 중동국가의 경제적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

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위협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은 북핵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일본의 경우는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사정권내에 입지하고 있고 핵개발이 완료되는 경우 핵미사일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된다는 점을 두려워하고 있다. 더 나아가 남북한 간의 화해분위기가 조성된 경우는 북한의 핵무기는 한반도 전체를 수호할 수 있는 무기로서 독도를 비롯하여 한일 간의 영토분쟁에 있어 일본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는 경우 일본이 핵무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일관계가 긴밀해져서 센카쿠 열도를 비롯한 중일간의 영토분쟁에 있어 불리하게 된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현재의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시베리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중국과 한국에 판매해야 할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을 매설해야 하는데 북핵 문제에 의해 북한과 주변국가들 간에 긴장관계가 조성되는 경우 불가능해진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의 나진과 자국의 하산을 연결하는 공업벨트 조성과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을 위해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러시아 또한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변국가들은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북핵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을 꾸려나가려고 하고 있다.

6자 회담을 비롯하여 북핵과 관련하여 주변국가들의 역학관계는 우선위기의 공사의 실행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태도가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관건이다. 그 동안 북핵협상에 있어 북한의 완고한 태도는 몸값을 불리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현재의 위급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연전략을 펼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조만간 6자 회담의 재개를 통해 비독판 공사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군창(群倉) 공사와 한반도 주변 국제경제

북핵문제 해결 이후에도 한반도가 상등국으로 발전하기까지는 또 하나의 단계가 남아 있다. 여전히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럽·미국·일본 등과 G2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반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세계의 정치·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가이다. 이에 증산께서는 1909년(기유년)에 전북 군산에서 서양·일본·중국의 경제를 황폐화시키는 대신에 한반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공사를 단행했다. “지유군창 지사불천하허 왜만리 청만리 洋九萬里 彼天地虛 此天地盈”이라고 써서 붙살랐다.⁴⁷⁾ 이는 “땅은 물산을 생산하기 때문에 세상을 텅 비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 그리고 저 멀리 서양은 텅 비게 되고 이 나라는 가득 차게 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증산께서는 1907년(정미년)에 오선위기 도수를 완수한 후 1909년(기유년) 화천 직전에 매화공사(埋火公事)를 통해 세계 핵전쟁의 위험을 해소하고 신방축 공사를 통해 일본의 지기(地氣)를 거두는 공사와 함께 한반도의 경제적 상등국의 공사를 단행했다. 오선위기 공사가 한반도 정치적 상등국 공사였다면 군창공사(群倉公事)는 경제적 상등국 공사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의 서구 중심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붕괴과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첫째, 유럽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 등 남부 유럽은 심각한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1999년 유로존(EURO Zone) 출범이후 이들 국가들은 환율 인하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겪게 된 대신에 국제발행을 통해서 독일이나 프랑스 등 북유럽 국가들로부터 저금리의 자금을 빌려 쓸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경과되면서 남유럽 국가들의 국가

47) 같은 책, 공사 3장 30절.

채무가 확대되어 재정위기를 겪게 됨에 따라 그 여파가 북유럽 국가의 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유로존은 기존의 자국화폐 대신에 유로라는 단일화폐를 사용하기로 결성한 유럽공동체로 1999년에 11개 회원국에서 출발하여 2014년 현재 18개 국가로 확대되었다. 단일화폐의 사용으로 독일과 프랑스 등의 북유럽 국가 화폐는 평가절하(환율 인상)가 이루어진 반면에 그리스·이탈리아 등의 남유럽 국가의 화폐는 평가절상(환율 인하)되었다. 그 결과 이들 국가들 간의 무역에 있어 북유럽은 흑자를 본 반면 이 남유럽은 적자를 경험하게 되었다. 남유럽의 경우 수출이 감소하면서 국내의 생산·소비·소득이 축소됨에 따라 조세수입이 감소하면서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남유럽 국가들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발행된 국채는 유로존 무역으로 막대한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있던 독일과 프랑스 등 북유럽 국가들이 구매했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면서 남유럽 국가 기업들의 채산성이 떨어지면서 줄도산 사태가 발생하자 이들 기업들이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금융위기가 나타남과 동시에 지속적인 국채발행으로 국가채무가 확대되면서 채무상환 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하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남유럽의 경제위기는 독일·프랑스 등 북유럽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실제로 남유럽 국가들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는 경우 북유럽 국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가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여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독일을 중심으로 한 북유럽 국가들은 유럽중앙은행(ECB)을 통해 남유럽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국채를 계속해서 사주고 있다. 현재는 북유럽 국가들이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를 지속적으로 인수함으로써 남유럽에 대한 통화 공급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럽의 경제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남북 유럽 모두의 고심거리이

다. 시간이 경과되면서 남북 유럽 공멸의 암울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성에 있어 남유럽에서는 1997년 우리나라 외환위기 당시의 금모으기 운동과 피나는 구조개혁 등 자구노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럽의 공멸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로존에 속하지 않은 영국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국은 남유럽에서 촉발된 경제위기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위치에 있으나 영연방(The United Kingdom)의 분리 독립 움직임으로 불안한 처지에 놓여 있다. 영연방은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북아일랜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스코틀랜드가 지속적으로 독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2014년 9월 18일 독립 찬반투표에서 어렵사리 독립을 저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에도 독립에 대한 요구와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원시반본이라는 시대원리에 비추어볼 때 원래대로 분리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은 도미노 현상처럼 웨일즈와 북아일랜드의 독립으로 이어지면서 영국은 약소국가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미국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경제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일본과의 무역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미국 제품은 에너지 다소비형의 중후장대(重厚長大)인 반면에 일본은 저소비형인 경박단소(輕薄短小) 제품을 지향했다. 그 결과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에 있어 미국은 일본의 경쟁상대가 되지 못했었다. 미국은 대일 무역수지가 악화되면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라는 쌍둥이 적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⁴⁸⁾ 일본에 대한 엔화

48) 플라자 합의(Plaza Agreement)는 1985년 9월 22일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의 G5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모여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미국과 유럽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당시의 달러 강세(달러 환율 저조)를 시정하기 위한 합의이다. 이를 위해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를 절상하는(환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독일은 동서독 통일이라는 시급한 사항으로 마르크화의 절상은 구체화되지 않은 반면에 일본은 당시 250엔이던 달러 대비 엔화의 환율이 125엔으로 급감하는 엔화 절상조치가 취해졌다. 그 결과 미국은 대일 무역적자의 해소와 함께 재정적자가 감소하는 효과를 향유하게 된 반면에 일본은 급격한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30년 기간 동안(1990-2010년대)의 경기

환율인하(엔화절상) 정책을 밀어붙여 간신히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에도 미국은 R&D와 구조개혁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보다는 수퍼301조를 동원한 강압적인 대외 무역정책으로 무역적자를 해소해 나가는 정책을 고수했다.

미국은 1990년대 접어들면서 중국에 의한 무역적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일본의 경우처럼 중국 위안화의 절상(환율 인하)을 강요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과 달리 미국의 협박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로서 막대한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 동안 미국은 대중 무역수지 악화에 의해 야기된 재정적자 상황에서 필요한 정부지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했고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에 의해 보유하고 있던 달러로 미국 국채를 다량으로 매입했던 것이다. 만약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방출하는 경우 미국 국채의 가치가 추락하여(국채 금리 인상) 미국은 국채의 추가 발행이 불가능해진다. 그 결과 미국은 중국에 대해 위안화 환율 인하를 더 이상 강요하지 못한 채 무역적자를 감수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중국을 대상으로 한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을 지속시킬 수밖에 없는 처지이었다. 그런 와중에 미국정부는 2001년 9.11 사태에 의한 국내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정책(적자재정)과 금융정책(금리인하)을 통해서 시중 유동성을 확대했다. 이렇게 증가된 유동성은 실물경제로 스며들지 못하고 부동산 버블을 야기했으며 2008년에 버블이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까지를 겪었다. 이에 오바마 정부는 양적 완화(Quantity Erasing)⁴⁹⁾를 통해 막대한 추가 재원을 풀면서 경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아베정권은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막대한 재원을 살포하여 경제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49) 양적 완화는 비전통적인(unconventional) 재정정책의 한 유형이다. 전통적인 재정정책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확보한 재원을 투자함으로써 경기를 진작시키는 방법이다. 그런데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기존의 국채 발행 대신에 정부가 통화를 발행하여 이미 시중에 판매했던 국채와 금융권이 발행했던 각종 자산담보부 채권(ABS)을 되사들으로써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을

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다행히 최근에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셰일(shale) 가스와 원유의 개발로 에너지 비용을 낮춤으로써 경기회복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정적자는 GDP의 100%를 상회하는 1조7천억 달러에 달하고 무역적자 또한 지속되고 있다. 최근 셰일 에너지의 본격적인 개발로 희망적인 국면을 맞이하면서 당분간 안정적인 경제상황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난 두 세기 동안 미국 경제성장의 기반이었던 청교도정신과 개척정신의 회복은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일본을 살펴보기로 하자. 일본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가 초토화된 상태에서 한국전쟁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이용하여 경제성장의 기반을 확보한 후에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1980년대 중반까지 대미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면서 황금기를 구가했다. 1985년 플라자 합의에 의해 250엔이던 달러 대비 엔화환율이 반감함으로써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더 이상의 대미수출이 차단되면서 공장의 가동이 멈추면서 국내경기가 급랭했다. 환율 급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대거 외국으로 빠져 나감에 따라 국내 경제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 확대와 금리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확장적인 경제정책을 폈다. 대미수출이 막힌 상태에서 확대된 유동성은 실물부문이 아닌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들어가 부동산 버블을 야기하고 그 버블이 붕괴되면서 경제가 초토화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속적인 적자재정과 금리인하 조치를 단행하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자 했으나 1985년 플라자

택했다. 이러한 양적 완화는 이미 시중에 국채가 과다하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한 경우에도 더 이상 소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방법은 국채발행과 정부재정지출이라는 두 단계의 조치를 통해 유동성을 확대하는 데 반해 양적 완화는 정부가 채권 매입과 동시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정부의 발권력을 동원하기 때문에 과도한 통화 공급으로 조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정부가 매입한 채권을 향후에 매각해야 하는 경우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야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은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양적 완화를 실시했으며 경제가 회복되어 감에 따라 현재의 양적 완화(채권매입)의 규모를 축소하여 오다가 2014년 10월에 종료시켰다.

합의 이후 ‘잃어버린 10년’은 현재까지 지속되면서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설상가상으로 2011년 동일본 지진으로 일본경제는 결정타를 얻어맞았다. 이에 아베 정권은 양적 완화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하여 경제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매년 양적 완화(채권매입)의 규모를 사전에 설정하고 계획된 범위 내에서 실행한 반면에 아베 정권의 양적 완화는 무한정적으로 행사되고 있다. 이는 발권력을 동원하여 유동성을 무한대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무역적자 또한 지속되고 있다. 다만 2013년에 주가가 일시 급등했으나 2014년에 접어들면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더블 딥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5→8%)으로 양적 완화의 효과가 상쇄되면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판론이 팽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양적 완화라는 최후수단까지 동원한 상태에서도 경기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하다. 플라자 합의 이후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한 결과 국가채무는 세계 최대 규모인 GDP 250%에 달하고 금리 또한 0%대를 떨어져 더 이상의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미국과 달리 아베정권의 양적 완화 효과에 대해 비판적인 점은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발행한대로 세계적으로 유효하게 통용되는데 반해 엔화는 달러에 비해 저급한 화폐라는 점에서 시중에서 소화되지 못한 채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⁵⁰⁾만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플라자 합의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국내의 전반적인 부문에서 활력이 떨어졌다는 점이 일본 경제에 대한 비판론을 부추기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경제의 중심은 유럽에서 출발하여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머

50)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화공급을 확대한 경우 통화가 투자와 소비의 실물경제가 유통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만을 야기시키는 현상을 의미한다.

물렀다가 태평양을 건너 일본을 거쳐 중국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1970년대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 이후 많은 인구, 풍부한 자원, 넓은 시장을 기반으로 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현재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서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자랑하면서 경제의 영토를 아프리카까지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국제물가와 원자재 가격을 좌우할 정도의 세계 경제의 중심국가로 성장했다. 이러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세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미국과 여러 부문에서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의 압축성장은 중국대륙에 많은 그림자를 남기고 있다. 급속한 임금상승에 의한 국제경쟁력 저하, 빈부격차에 의한 계층 간의 갈등, 소수민족의 독립 요구, 권위적인 정치체제 극복을 위한 민주주의의 요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중국은 그 동안 압축성장 과정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하는데 거쳐야 할 단계를 건너뛴으로써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허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원만하게 통과하지 못한 경우 중국의 위상은 급락할 수 있다.⁵¹⁾

증산께서는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를 순망즉치한(唇亡則齒寒)으로 규정하고 중국 공사를 행했다. 중국이 편안해야 한반도가 부흥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천지공사 당시 청나라(만주족)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한족(漢族)을 회복시키는 공사를 행하였다. 이를 위해 1908년(무신년)에 청나라 광서제에 응기되어 있던 황극신(皇極神)을 청주 만동묘⁵²⁾에 옮기는 공사를 단행했다.⁵³⁾ 그 결과 동년에 광서제와 당시 실세였던 서태후가 사망하게 되어 청나라는 쇠락의 길을 걷다가 1912년에 폐망

51) 현재 제기되고 있는 홍콩 행정특별구 행정장관의 직선제에 대한 홍콩 국민들의 요구는 향후 분리독립 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중국 본토의 티벳과 신장(위구르족)을 비롯한 각지의 소수 민족의 분리독립 움직임으로 변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빈부격차 해소와 민주화 요구가 함께 할 때 그 파급효과는 폭발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52) 만동묘는 임진왜란 때 조선에 원군을 파견한 명나라 신종과 의종을 기리기 위해 송시열(송우암)의 유지에 의해 그 제자들이 1704년에 청주에 세운 사당이다.

53) 『전경』, 공사 3장 22절.

하게 된다. 이러한 중국 공사는 한족의 해원공사인 동시에 한반도 상등국 공사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당시 증산계서는 중국을 세계에 비할 수 없는 물증지대(物衆地大)와 예악문물(禮樂文物)의 대중화(大中華)임에도 불구하고 오랑캐라고 할 수 있는 청나라에 의해 정복된 결과 대중화가 원한에 쌓여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의 황극신을 만동묘로 천거(薦居)함으로써 중국의 신명들이 한반도에서 역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와 관련하여 증산계서는 “중국은 예로부터 우리의 조공을 받아 왔으므로 이제 보은신은 우리에게 쫓아와서 영원한 복록을 주리니 소중화(小中華: 한국)가 곧 대중화(大中華)가 되리라.”⁵⁴⁾라고 일러 주었다.

이와 같이 한족 해원과 한반도 상등국을 내용으로 하는 증산의 중국 공사는 현실화되고 있다. 먼저 중국은 모택동에 의해 한족을 중심으로 한 통일국가를 형성한 후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에 의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현재는 동북아를 넘어 미국과 함께 세계패권을 다투고 있는 G2로 성장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중국과 한국은 한국전쟁의 적대감과 정치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급속하게 가까워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전체 무역흑자 중에서 중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2013년 기준 67%),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중에서 중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2014년 상반기 기준 51%). 이와 함께 영화·드라마·음악 등 한류가 중국에서 가장 강하게 유행하고 있으며 내한 중국 관광객은 연간 5백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숫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한중 FTA가 체결됨에 따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 결과 한국은 현재의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은 한류라는 문화적인 유인을 앞세워 중국

54) 같은 책, 공사 3장 18절.

시장을 진출하고 있어 중국시장을 쉽게 잠식해가고 있다.

현재 한·중간에는 국제적 분업관계와 함께 여러 부문에서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한국은 건국이후 압축성장 과정에서 경제적 성장과 함께 남북한 전쟁, 정치적 민주화를 비롯한 역사발전 단계상의 모든 홍역을 성공적으로 치루었다. 이에 반해 중국은 빈부격차, 민족갈등, 정치적 권위주의 등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이는 결국 중국의 국제경쟁력과 저하와 직결되는 문제들로 경쟁에서 한국을 극복하는 데 버거운 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대중화(大中華: 중국)와 소중화(小中華: 한국)의 국제위상이 역전된다는 증산의 천지공사가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는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한중 FTA 하에서 한국이 최종 승자가 될 것이다.

V. 상등국 천지공사의 이념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1. 해원상생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증산께서는 천지공사를 통해서 상도(常道)를 잃은 천지도수를 정리하여 지상천국을 건설하고자 했고 그 중심국가로 한반도를 상정했다. 이러한 천지공사는 신인의도(神人依導)⁵⁵⁾의 이법(理法)으로서 해원(解冤)과 보은(報恩)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증산의 천지공사는 신인합일(神人合一)과 신인조화(神人調化)의 원리에 의해 인간과 신명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협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방향은 해원과 보은의 관점으로

55) 같은 책, 교운 2장 42절, 陰陽經, “神無人後, 無托而所衣, 人無神前, 無導而所依, 神人和而, 萬事成, 神人合而百工成, 神明俟人人竣神明, 陰陽相合神, 神人相通, 然後天道成而地道成, 神事成而人事成, 人事成而神事成 …”

진행된다. 따라서 한반도 상등국 천지공사의 실현과정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DMZ공원 성격을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의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증산께서는 해원상생의 관점에서, 천상에서 서양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벽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기 위해 동방을 순회하던 중 조선 땅에 머문 것은 참화에 묻힌 무명의 약소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 주기 위해서였다.⁵⁶⁾ 이러한 해원상생의 원리는 명부공사를 행함에 있어서도 보국안민(輔國安民)과 제세대도(濟世大道)의 큰 뜻을 품었으나 실현하지 못하고 죽음을 당했던 전명숙과 최수운을 각각 조선과 일본의 명부로 임명했다.⁵⁷⁾

또한 구한말 유럽 열강이 서세동점하는 상황에서 한반도를 유럽 제국주의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일본에게 일시천하통일지기(一時天下統一之氣)와 일월대명지기(日月大明之氣)를 부여하여 조선을 의탁하는 공사에서도 일본에 대한 해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임진왜란 때 한반도에서 성공하지 못함으로 도리어 원한이 맺혀 삼한당(三恨堂)의 처지에 처해 있었다.⁵⁸⁾ 첫째 한은 서울에 들어오지 못함이고, 둘째 한은 무고한 조선의 인명을 많이 살해하여 조선으로부터 원한을 받은 것이고, 세 번째 한은 왜군이 조선해군에 의해 해상보급로가 폐쇄됨에 따라 식량을 자체 조달하기 조선인에게 이양법(移秧法)을 가르친 것이었다. 따라서 증산께서는 일본에 대한 일시천하통일지기 공사를 통해서 일본으로 하여금 이를 해소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일본은 조선총독부를 서울에 설치함으로써 첫 번째 원을 풀고, 일본 식민지 통치 기간 동안 무고한 조선인을 살해하지 않음으로써 두 번째 원을 해소하고, 태평양 전쟁 발발한 해인 1941년부터 3년 동안 한반도에 대

56) 같은 책, 권지 1장 11절.

57) 같은 책, 공사 1장 7절, 교법 1장 2절.

58) 같은 책, 예시 74절.

기근이 들게 함으로써 세 번째 원한이 풀렸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상등국 천지공사의 완성을 위한 오선위기 공사도 인류의 원한의 근원인 단주(丹朱)의 해원에서 출발하고 있다. 증산계서는 1907년(정미년)에 오선위기 공사를 통해 단주를 해원시킴으로써 여기에서 이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한반도 상등국 천지공사에 활용했다. 단주는 당(唐)의 왕이었던 요(堯)의 아들이었으나 불초하다는 이유로 요가 단주를 배제시킨 채 순(舜)에게 두 딸과 함께 보위를 이양하고 단주에게는 바둑에만 전념하도록 했다. 이에 단주는 원한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멸망시키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다. 이때부터 원한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 원한의 종자가 퍼져서 천지를 가득 채워 인류가 파멸의 지경에 이르렀었다. 증산계서는 이러한 단주의 원한을 해소함으로써 인류의 원한의 뿌리를 제거함과 동시에 한반도 상등국 공사를 완결시켰다.⁵⁹⁾

이와 함께 증산계서는 해원을 통한 한반도 상등국 천지공사를 체결한 후에 인류의 공멸을 방지함으로써 세계 상생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단행했다. 실제로 1907년(정미년) 한반도 상등국을 위한 오선위기 공사를 완성한 다음해인 1908년(무신년)에 매화(埋火) 공사를 행했다. 훗날 세계가 변산 같은 큰 불덩이에 의해 타 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불을 묻었다.⁶⁰⁾ 이러한 매화공사는 향후 인류가 핵전쟁에 의해 전멸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증산계서는 상등국 공사 완성 후 매화공사를 통해 마지막의 위협요소까지 제거함으로써 한반도 중심의 후천도수를 물샐틈없이 완성했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세계의 지난 역사를 설명할 수 있음과 동시에 향후 미래의 전개상황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증산의 천지공사에 의해 애기씨름판과 총각

59) 같은 책, 공사 3장 4절.

60) 같은 책, 공사 3장 1절.

씨름판을 거친 후 상씨름의 최종판이 오선위기의 형국으로 종결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반도 중심의 후천의 세계역사가 새롭게 전개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그의 출발점이 DMZ공원이다.

DMZ공원이 세계 여러 국가 중에서 한반도에 그리고 한반도 중에서도 중부권 접경지역(포연철: 포천·연천·철원)에 조성되는 논거는 증산의 천지공사의 이념인 해원상생에서 찾을 수 있다. 한반도는 상고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빈번한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서도 그 민족성을 유지해오는 과정에서 원한이 누적되어 왔다. 그 결과 해원을 기본으로 하는 증산의 천지공사의 첫 번째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증산께서도 천지공사를 통해서 도탄에 빠져 있는 한민족을 먼저 건지겠다고 설교했다.⁶¹⁾ 더 나아가서는 한민족은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1·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국가로서 세계에서 가장 처절한 비운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러한 한민족을 해원시키기 위해서는 후천의 세계정부의 시발점에 해당되는 DMZ공원이 한반도에 조성되어야 하는 숙명적인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는 6.25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뉘어 마지막 상씨름을 치룬 곳으로 향후 인류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양자 간의 원한과 앙금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DMZ공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DMZ 생태평화공원’에는 ‘세계’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그리고 DMZ공원은 6.25 당시 남북한 간에 치열한 전투를 치르다가 휴전과 함께 완충지대로 설정된 DMZ에 조성될 예정이다. 남북한 간의 합의를 통해 DMZ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그 동안의 상호 갈등과 대립에 의한 원한관계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DMZ공원은 단순한 평화공원의 범위를 초월하여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남북교류 전지기지 더 나아가서는 통일수도로 발전

61) 같은 책, 권지 1장 11절.

함에 따라 통일한국이 세계 정치경제의 주도국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동서 124km DMZ 중에서 현재 중부권(포연철)이 최적의 지정학적 여건을 구비하고 있음과 동시에 중부권은 6.25 남침이 최초로 발발했던 지역(연천)이며 휴전을 목전에 두고 가장 치열하게 전투를 치루었던 지역(철원)으로 남북한 간의 원한과 전쟁의 앙금이 서려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역에 DMZ공원이 조성되는 경우 중부권에 맺혀 있는 남북한 간의 원한 관계를 해소하게 된다. 더 나아가 DMZ공원이 조성되는 경우 남북공동시설과 함께 국제기구가 함께 입지함으로써 한반도와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부권 접경지역에서 남북한 간의 전쟁의 도화선을 영원히 제거됨으로써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공존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부권 접경지역들이 그 동안의 낙후와 규제에서 벗어나 통일수도의 후보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된다. 포천시는 현행법상 전 지역이 접경지역에 속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 30%를 차지하고, 주한 미군 전부대가 사용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미군 전용의 영평사격장(13.52km², 409만평)과 동양최대 규모의 한국군 전용의 승진사격장(19.52km², 600만평)이 입지해 있고, 행정구역의 3분의 1 이상이 38도선 이북에 속하여 김일성 별장이 위치했던 지역으로서 전형적인 접경지역형 낙후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규제를 받아 왔기 때문에 낙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연천군 또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북한과 대치하고 95.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지정되어 토지이용 규제를 받고 있다. 철원군 역시 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미비로 말미암아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강원도의 변방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중부권 지역에 DMZ공원이 조성되는 경우 증산계서 “해원시대를 맞이하여 사람도 명색이 없던 사람이 기세를 얻고 버

림을 받던 땅에도 기운이 돌아오리라.”⁶²⁾고 설과한대로 중부권 접경 지역이 그 동안의 낙후와 규제로부터 해원함과 동시에 통일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충청권에 세종시가 조성됨에 따라 현재 서울의 수도기능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어 향후 세종시가 수도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부 행정부처와 청와대·국회가 서울에 존치함에 따라 행정기능의 이원화로 말미암아 막대한



<그림 3> 철마는 달리고 싶다

비용(연간 4.5조원 상당)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모든 정부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에는 서울시는 경제산업도시로 변모하고 세종시가 수도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세종시는 향후 한반도 통일과 세계정부 수립과정에서는 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증산께서는 충청권의 계룡산(鷄龍山) 건국의 비결에 대한 종도들의 질문에 대해 동서양의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계룡산 건국은 허망한 일이라고 대답한 바 있다.⁶³⁾ 증산의 이러한 언명은 한반도 상등국 천지공사에 의해 통일수도가 중부권 접경지역에 조성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보은상생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증산께서는 한민족이 세계에서 신명 대접이 가장 극진하기 때문에 신명들이 그 은혜를 갚고자 한다는 점을 설파하고,⁶⁴⁾ 이에 대한 보은

62) 같은 책, 교법 1장 67절.

63) 같은 책, 교법 3장 40절.

차원에서 천지신명과 함께 한반도를 상등국으로 만들기 위한 천지공사를 단행했다. 증산께서 천지공사를 독단적으로 행하기보다는 천지신명과 함께 행했다는 점에서 천지신명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를 천지공사의 실행공간으로 선택하고, 그 곳에 후천 상등국을 건설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 결과 세계에서 신명공대가 가장 극진한 한반도가 천지공사관이 됨과 동시에 상등국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실제로 한민족은 예로부터 신명공대가 극진한 관계로 모든 신명들이 한반도에 오고 싶어 했을 것이고 이에 증산께서 천지공사의 주재자로서 세계의 각지에 흩어져 있던 천지신명들을 한반도로 초청하여 이곳에서 후천 오만년의 천지공사와 함께 조선 상등국 공사를 행했을 것이다. 실제로 조선 상등국 공사를 마무리함에 있어(소중화 → 대중화) 청나라 광서제에 응해 있으면서 만민을 다스리는 제왕의 업무를 담당하던 황극신을 조선으로 옮겼다. 그 결과 광서제가 사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청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 황극신을 한반도로 천거하여 조선 상등국 공사를 완성하게 되는 연고는 조선이 만동묘를 조성하여 명나라의 의종과 신종에게 극진하게 제사한 사실에서 비롯되었다.⁶⁵⁾

이밖에도 수많은 신명들이 한반도에 집결하여 증산 상제의 명을 받아 천지공사와 함께 조선 상등국 공사에 동참했다. 증산께서는 많은 짐을 실어 나르는 남조선 뱃길을 개방하여(권지 1장 11절) 신명들이 화물선의 화물표에 붙여 한반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예시 29절).

이와 같이 신명들이 한반도로 집결함에 따라 천지공사의 원리인 신인의도(神人依導)에 의해 인간들도 합류하고 있다. 인망(人望)을 얻어야 신망(神望)을 얻을 수 있듯이(교법 1장 25절) 신망을 받음으로써 인망도 받게 된다. 신명들이 한반도에 오고 싶어 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인간들이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민족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세계적으로 드문 국가이며 평화를 사랑

64) 같은 책, 교법 3장 22절.

65) 같은 책, 공사 3장 22절.

하고 인애를 베푸는 민족이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인류와 완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매년 한국 방문객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세계적인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사람과 화폐가 모이는 지역이다.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한반도가 세계 정치경제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고 이에 대한 구심점으로서 DMZ공원이 제안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DMZ공원의 최적으로 간주되고 있는 중부권 접경지역(포천철)은 역사적으로 한반도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이 삼국시대 이래로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포천(왕방산)에는 삼국시대에 삼국통일과 국태민안을 기원했던 신라왕의 도장인 왕방사(王訪寺)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조선개국을 위해 기원했던 태조 이성계의 가족의 자취가 남아 있다. 또한 6.25 이전에는 북한의 영토였던 산정호수에 김일성 주석이 한반도 (적화)통일을 구상했던 별장 터가 남아 있다. 연천에는 신라군이 60만의 당나라 대군을 무찌름으로써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했던 매초산성이 존재하고,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했던 태조 왕건의 사당인 충의전이 보전되고 있다. 또한 연천에는 6.25 당시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하여 전사했던 유엔군의 화장터가 남아 있다. 끝으로 철원에는 후삼국을 통일하고자 했던 궁예의 도성터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중부권 접경지역은 삼국시대 이래로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성지로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통일노력에 대한 신명적인 보은 차원에서 향후 한반도의 통일수도와 세계정부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DMZ공원이 입지하게 될 것이다.



<그림 4> 중부권 접경지역 통일 유적지

VI. 연구결과의 합의와 맺음말

증산께서는 우주질서를 생(봄)·장(여름)·염(가을)·장(겨울)으로 구분하고,⁶⁶⁾ 현하를 염(가을)의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⁶⁷⁾ 증산께서는 이러한 우주 가을철의 시대적 특징의 하나로 원시반본(原始返本)을 들고 있다.⁶⁸⁾ 이는 나무가 봄과 여름철에는 성장과 분열을 통해 잎과 가지를 번성시키다가 가을철에는 낙엽을 떨구고 수분과 양분을 뿌리로 회귀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를 인류역사에 대비하는 경우 인류가 원시 원형문화에서 출발하여 세계만방으로 퍼졌다가 우주 가을철을 맞이하여 본거지로 돌아오게 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원래 한민족은 환국 → 배달 → 고조선 → 북부여 → 고구려 → 발해 → 고려 → 조선 → 대한제국 →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9천 년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문명의 종가국(宗家國)이다. 한민족의 뿌리 국가임과 동시에 세계 최초 국가였던 9천 년 전의 환국이 지금으로부터 6천 년 전에 천재지변과 기후변화를 겪으면서 양분되어 한 갈래는 동진하여 배달·고조선·북부여·고구려를 거치면서 한반도에 정착하고 일부는 동북진하여 오츠크해 인근 → 베링해협 → 캄차카반도 → 알류산열도 → 알래스카 → 아메리카대륙까지 진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 다른 한 갈래는 서쪽으로 천산(Anshan)을 넘어 이주하여 서양문명의 효시인 수메르 문명을 탄생시킨 후에 계속 서진하여 지중해 문명과 유럽문화를 발전시킨 후에 대서양을 건너가 먼저 정착해 있던 아메리카 토착민들을 정복하였다.⁶⁹⁾ 이와 같이 널리 퍼져 있던 한민족의 문화와 인종의

66) 같은 책, 교법 3장 27절

67) 같은 책, 예시 30절.

68) 같은 책, 교법 3장 42절

69) 손성태, 「아스텍제국에 나타난 우리민족의 풍습」, 『비교민속학』 43, (2010), pp.299-347; 손성태, 「우리민족의 태양신 신앙과 아메리카 이둥」, 『비교민속학』 52, (2013),

치어(稚魚)들이 성어(成魚)가 되어 후천 가을개벽 시대를 맞이하여 한반도로 회귀하고 있다. 실제로 근현대의 세계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축이 유럽 지중해에서 출발하여 대서양을 건너 미국을 거쳐 태평양을 넘어 잠시 일본에 머물렀다가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드라마·노래·음식 등이 한류(The Korean Waves)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퍼지면서 세계의 모든 민족과 인종들이 한국을 동경하고 있다. 이러한 한류의 열풍은 우연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주 가을철에 원시반본하는 자연섭리라고 볼 수 있다.

증산께서 상제로서 서양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와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한반도에 탄강하여 후천 선경세계 건설을 위한 천지공사를 공사를 행한 점은 이곳이 세계인류의 종가국이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증산께서는 자신의 한반도 종가국 탄강과 관련하여 조선강산이 명산이기 때문에 대선생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갱생하여 1만2천 도통군자를 배출하게 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⁰⁾ 그리고 종가국에서의 천지공사는 한반도 상등국 공사를 본질적인 내용으로 한다. 원시반본 시대에는 혈통줄이 바로 잡히기⁷¹⁾ 때문에 종가국 중심으로 세계질서를 재편하게 된다. 한반도에서 상생을 위한 글로벌 마스터플랜을 설계하여 모든 국가와 민족에 적용함으로써 후천 지상 선경세계를 건설하고자 했다.⁷²⁾ 이를 위해 증산께서는 천지공사를 통해서 남조선 뱃길을 열어 전명속으로 하여금 도사공(都沙工)을 맡게 하여 혈식천추 도덕군자들이 배를 몰고 한반도로 향하도록 했다.⁷³⁾

pp.301-341; 손성태, 『우리민족의 대이동: 아메리카 인디안은 우리민족이다』 (서울: 코리, 2014); Steve Taylor, *The Fall: The Insanity of the Ego in Human History and the Dawning of a New Era* (Iffs Books, 2005); Rhee, Hong Beom, *Asian Millenarianism: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the Taiping and Tonghak Rebellions in a Global Context* (Youngstown, N.Y.: Cambria Press, 2007)

70) 『전경』, 권지 1장 11절.

71) 같은 책, 교법 3장 42절.

72) 같은 책, 예시 14절, “萬國活計 南朝鮮, 淸風明月 金山寺, 文明開花 三千國, 道術運通 九萬里.”

73) 같은 책, 예시 50절.

이러한 증산의 한반도 상등국 천지공사는 현재에 이르러 DMZ공원에 의해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 조성될 DMZ공원은 남북교류 전진기지로서 향후 통일수도로 발전함과 동시에 글로벌 상생의 정치와 경제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DMZ공원에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함께 세계평화와 공존의 상징시설들이 입지하게 되어 세계정치의 중심지로 발전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21세기 철의 실크로드 시발역으로서 세계의 물류거점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20세기 제국주의형 자본주의를 청산하고 미덕이 넘치는 세계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구심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증산께서는 선천 상극세상을 마무리하고 후천 지상선경을 건설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천지공사를 단행했다. 천지공사는 천지인 삼계공사이지만 최종적으로 천지의 주인공인 인간공사로 귀결되며 이때의 인간은 무정부주의적인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이다. 현대 사회에 있어 국가가 가장 전형적인 인간 공동체라는 점에 입각한 경우 증산의 천지공사는 상생이 넘쳐나는 국가건설로 귀착된다. 이때 증산께서는 세계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특정국가를 상등국으로 건설한 후에 이를 중심으로 상생의 세계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다. 증산께서는 천지인 삼계 우주대권의 주재자로서 천지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해원상생·보은상생이라는 공평무사한 원리를 기준으로 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한 천지공사는 결국 한반도 상등국 공사로 귀결된다.

증산의 한반도 탄강 당시의 한반도 상황은 이리때와 같은 제국주의 열강에 포위되어 있는 어린 양과 같았다. 증산의 천지공사는 이러한 나약한 국가를 보호·육성하여 후천 선경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상등국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우주적인 메가 플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증산께서 행한 명부공사, 씨름판 공사, 오선위기 공사, 군창공사 등 모든 천지공사가 한반도 상등국 공사로 귀결된다. 이러한 증산의 천지공사는 우주 역사상 유일무이한 일로서⁷⁴⁾ 물샐틈없이 짜여 있기 때문에

제 한도대로 돌아가고 있다.⁷⁵⁾

현재에 이르러 증산의 한반도 상등국 천지공사가 결실을 맺을 시점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첫 걸음이 DMZ공원이다. DMZ공원은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남북 교류와 협력의 구심점이 되고 향후 통일수도로 발전함과 동시에 세계의 정치경제의 일번지로 성장할 것이다. 한반도는 세계의 명당이고, DMZ공원은 이러한 한반도 명당의 혈자리에 조성될 예정이다. 그 결과 DMZ공원은 선천의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냉혹한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해원과 보은을 위주로 상생의 자본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후기 자본주의의 거점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증산께서는 한반도에서 9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천지공사를 행한 후에 한민족의 손에 인(仁)과 생(生)을 쥐어주고 화천하면서 선천에서는 모사재인(謀事在人) 성사재천(成事在天)이나 후천에서는 모사재천(謀事在天) 성사재인(成事在人)이라고 알려주면서 상등국 건설을 위한 빈틈없는 노력을 당부하였다. 천지대운이 한반도로 밀려들어오고 있는 이때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증산의 상등국 천지공사의 비전과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한민족의 과제이다.

74) 같은 책, 공사 1장 2절.

75) 같은 책, 예시 16절.

【참고문헌】

-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 『대순진리회요람』, 여주: 대순진리회 교무부, 2010.
- 구사회, 「강증산의 종교운동과 민족의식」, 『한국민족문화연구』 23, 2007.
- 김정완, 「통일시대를 대비한 접경지역 시군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한국지방행정학보』, 10, 2013.
- 김찬권,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국민 인식도 조사」, 『중부권 접경 지역의 미래: 평화공원과 통일수도』, DMZ 세계평화공원 중부권 유치위원회 Workshop, 대진대 DMZ연구원, 2014.
- 손성태, 「아스텍제국에 나타난 우리민족의 풍습」, 『비교민속학』 43, 2010.
- _____, 「우리민족의 태양신 신앙과 아메리카 이동」, 『비교민속학』 52, 2013.
- _____, 『우리민족의 대이동: 아메리카 인디안은 우리민족이다』, 서울: 코리, 2014.
- Rhee, Hong Beom, *Asian Millenarianism: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the Taiping and Tonghak Rebellions in a Global Context*, Youngstown, N.Y.: Cambria Press, 2007.
- Steve Taylor, *The Fall: The Insanity of the Ego in Human History and the Dawning of a New Era*, Iffs Book, 2005.

▪Abstract▪

Jeungsan Thoughts and DMZ World Eco-peace Park
- Universal Redesign for the Foremost Leading Country
centering on Korea -

Jeong-Wan Kim

Daejin University

Jeungsan(甑山) carried out the Universal Redesign(天地公事) through which the former world full of a mutual opposition(相克) can be peacefully transferred into the latter world composed of a mutual beneficence(相生). Although the Universal Redesign consists of such three factors heaven, earth, and human, it converges towards Human Redesign in that humans are the main agents for heaven and earth. Human as Redesign object is characterized as a member of community, not an anarchistic individual. The Universal Resign of Jeungsan is eventually connected with the construction of a country comprising a mutual beneficence in that it is the most typical strain among all the human communities. His Universal Resign for foundering the foremost country does not target all the countries, but only one country upon and through which the world with a mutual beneficence can be formed. He executed the Universal Redesign based on such three principles as Haewon sangsaeng(解冤相生), Boeunsangsaeng(報恩相生), and Wonsibanbon

(原始返本),

Judging from such principles, Korea can be naturally selected as the target of the Universal Redesign for constructing the foremost country. It is approaching when the Universal Redesign in order to transform Korea into the foremost country comes true. The first step for Korea to be made as the foremost country is the construction of DMZ World Peace Park (DWPP) which was proposed by Bak Geunhye, the Korean President, to Obama, the President of USA, in 2013 she visited there. DWPP can be expected to be a center for corporation and inter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under the interest and support of the world including UN, furthermore, the Capital area of reunified Korea, and finally the world hub of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 DWPP is planned to be built at the core of the best place in Korea which is a propitious spot all over the world, upon which a new world capitalism order armed with mutual beneficence can spread.

Key words : Universal Redesign, DMZ World Peace Park,
Haewonsangsaeng, Boeunsangsaeng, Wonsibanbon

- ◎ 투 고 일 : 2014년 10월 31일
- ◎ 심사 기간 : 2014년 12월 19일~28일
- ◎ 게재 확정 일 : 2014년 12월 29일